

광산구 '체인지 메이커 지도사', 마을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도사 과정 통해 양성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꿈에 뽀짝' 지도사 과정을 통해 양성한 '체인지 메이커'들이 동네문제 해결사로 본격 활동에 나섰다.

마을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유쾌한 참견~ 마을문제 해결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도산동 △월곡

1동 △운남동 △침단2동 △신가동 등 광산구 5개 동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광산구 '꿈에 뽀짝'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한 '체인지 메이커 지도사'가 각 동 평생학습센터에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체인지 메이커'는 주민 삶이 있는 현장, 지역을 바꾸는 동네 혁신가를 뜻한다.

이들은 앞으로 동 평생학습센터의 평생학습매니저, 마을 활동가, 주민 등과 마을의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지난 12일 운남동 평생학습센터에서 가장 먼저 프로젝트를 시작한 가운데, 9월까지 마을별 문제를 풀 수 있는 공통 프로그램 개발 및 의제 실행방안 등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광산구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체인지 메이커 지도사'와 주민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실천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기만 기자

서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0종을 추가 선정하고 공급업체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구는 최근 답례품 공개모집을 통해 ▲북합유산균세트·선물용 생과자세트(바이오씨앗협동조합) ▲통닭세트 쿠폰(1969양동통닭) ▲무농약 블루베리·블루베리잼·블루베리젤 만들기체험(천사농원) ▲한우 선물세트(빛고을한들축산) ▲수제 돈가스 5종세트(젓가락스테이크) ▲삼겹살 모듬세트(태금축산) ▲압소한우우육탕(맛단) ▲반려동물용품세트(엳마켓) ▲낮또환·국산콩나물세트(답다푸드) ▲잡곡·누룽지세트(광민)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표상품으로 선정했다.

이후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00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가 잇따라며 따라 한우선물세트, 반려동물용품세트 등 최대 30만원까지 선택이 가능한 답례품들을 추가했다. 또한 기존 답례품 중 양념돼지갈비세트가 큰 인기를 끌며 2차 답례품에 양동통닭, 한우, 삼겹살, 돈가스 등 다양한 육류 제품을 추가했다.

서구는 최근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양동 천원국시' 등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등에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1월부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가영 기자

남구, 부모교육 특별강연

광주 남구 청소년도서관에서는 자녀 성교육 문제로 고민이 많은 학부모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특별강연 자리를 마련한다.

봉선동 청소년도서관에서 오는 26일 '성(性)공하는 아이로 키우기'라는 주제로 부모교육 특별강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의 성 의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연스러운 소통 과정을 거쳐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이다.

(사)푸른아우성 소속 성교육 전문가인 우선영 강사는 이날 관내 학부모들과 함께 2시간 가량 폭넓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른 신체 및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 범람하고 있는 음란물의 실태와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계획이다.

부모교육 특별강연에 함께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오는 23일까지 남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문화 프로그램 신청 코너에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 모집 인원은 50명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및 남구 청소년도서관(062-607-2541)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정희태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치러진 올해 첫 무등산 인문 축제 '인문 For:rest'가 기존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품격 있는 다양한 인문 콘텐츠를 선보이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구청 제공

동구, 무등산 인문 축제 '인문 For:rest' 성료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치러진 올해 첫 무등산 인문 축제 '인문 For:rest'가 기존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품격 있는 다양한 인문 콘텐츠를 선보이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읽이 있는 숲속 인문 생활'을 테마로 무등산 증심사 지구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이틀간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방문하는 대성황

을 이뤘다. 무등산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선보이는 동시에 무등산의 의미와 재미까지 모두 놓치지 않은 차별화된 인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이번 축제는 무등산을 찾는 등산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축제 기간 동안 '마음산책', '지식산책', '예술산책', '자연산책', '인문도시 산책' 등 5가지를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무등산이 가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축제 기간 내내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뜻깊은 시간과 소중한 경험이 됐기를 바라면서 내년에 더 풍요로운 축제로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이후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00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가 잇따라며 따라 한우선물세트, 반려동물용품세트 등 최대 30만원까지 선택이 가능한 답례품들을 추가했다. 또한 기존 답례품 중 양념돼지갈비세트가 큰 인기를 끌며 2차 답례품에 양동통닭, 한우, 삼겹살, 돈가스 등 다양한 육류 제품을 추가했다.

서구는 최근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양동 천원국시' 등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등에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1월부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가영 기자

북구, 공원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운영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공원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들이 문화공연,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공원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현황 전화 확인, 신청서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이용 허가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북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공원시설 예약현황을 조회하고 이용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지난달 말 구축완료했다.

예약 대상은 ▲본촌근린공원 ▲문화근린공원 ▲신용빛고을근린공원 ▲일곡제2근린공원 ▲영상강대삼근린공원 ▲용흥어린이공원 등 공영장이 설치된 6개 공원이다.

예약시스템은 북구청 홈페이지(<https://bukgu.gwangju.kr/>) 예약신청 서비스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반응형 웹 디자인이 적용돼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북구는 이번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공원시설 예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원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관내 모든 공원의 위치, 면적, 시설 등 주요 정보와 공원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 일정을 함께 제공해 주민들의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시스템 이용상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함평청지
HAMPYEONG

함평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